

# '81 韓國防産物資展示會를 마치고

## 편 집 실

### 2 行事規模 및 內容

本行事는 4個月餘의 짧은 준비기간 밖에 못가 짐으로서 충분한 海外弘報 및 바이어 誘致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政府側의 특별한 배려와 國內外關係機關의 적극적인 협조지원으로當初 目標한 수준에는 무난히 달한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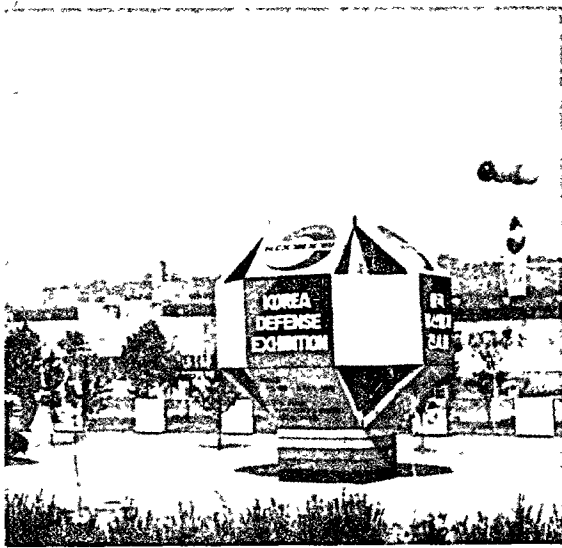
특히 本展示會는 當初 10일간('81 9 25~'81. 10 4)으로 예정 進行中에 있었으나 國內各層의 뜨거운 與望에 따라 불가피 1日間을 연장하므로서 總 11日間에 걸쳐 展示 된바 있으며 그 규모는 약 2,700坪의 屋內外展示場에 약 4,000點에 달하는 거의 대부분의 防産物資(一般軍需物資包含)가 出品展示 된바 있으며 기간중 內外國人 延約 7萬名이 參觀하였다.

또한 期間中 63個國으로 부터 來韓한 外國인에게는 특별히 國軍의날 記念行事參觀, 防産紹介映畫上映, 工業團地 視察등의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므로서 展示會行事와 더불어 우리 國力에 대한 直接的 弘報效果를 더욱 증대시킨바 있으며 '81.10 2 실시된 本會 主催 리셉션을 통하여 關係國人士와의 유대강화와 傳統的 友誼를 돈독히 한바 있다.

### 3 成 果

前記한 바와 같이 짧은 준비기간, 방대한 展示會行事 舉行에 따른 經驗不足, 關係分野 專門委員의 부족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主催側은 물론 全出品 業體가 혼연일체가 되어 心血을 경주한 결과, 다소 미흡한 면도 없지 않았으나, 防産史上 初有의 행사임을 감안할때 대체적으로 期待以上の 성과를 얻은 것으로 보아 큰 보람을 느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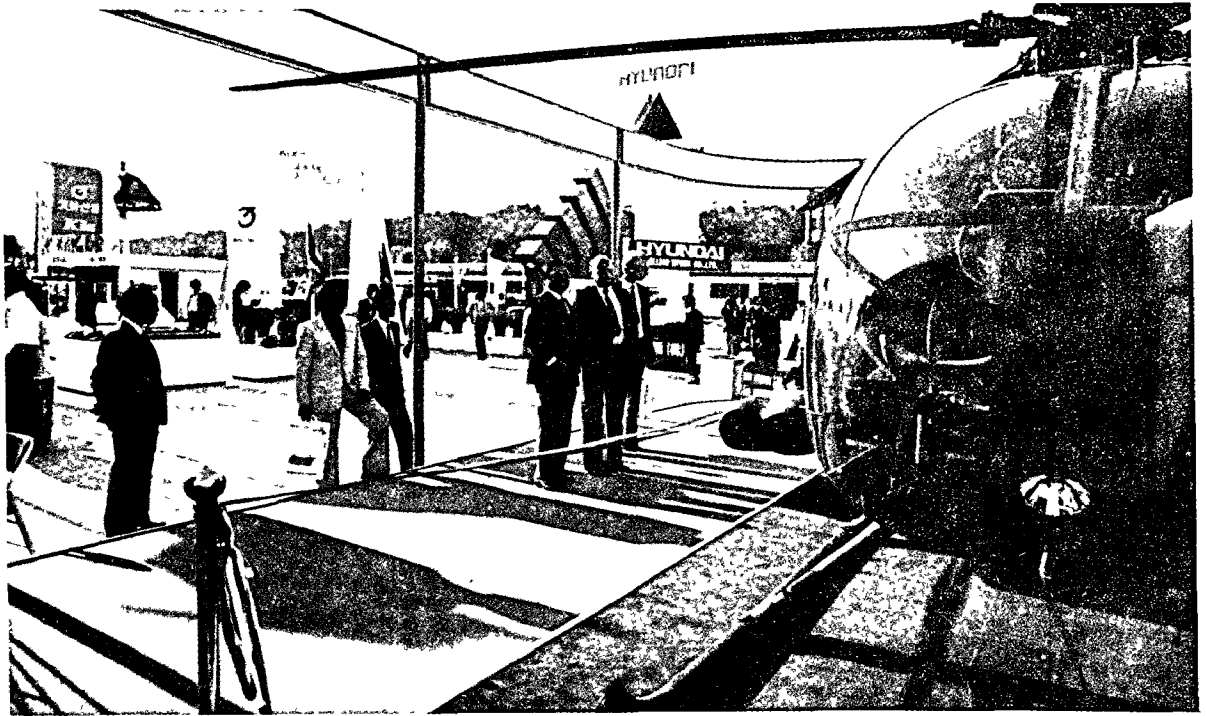
특히 國內弘報보다는 海外人士 參觀유치에 큰



### 1. 背 景

우리나라 防衛産業의 背景에 대하여는 本紙 9月號에 게재한 韓國防産物資展示會 案內에서 既히 소개한바 있다, 따라서 本展示會는 如斯한 배경하에서 10餘年間에 걸쳐 축적한 防産能力을 第33周年 國軍의 날 행사와 연계하여 國民과 海外人士에게 공개전시하므로서 內面的으로는 國産 防産物資의 우수성과 高度化 신장된 우리技術의 潜在力量을 示顯하므로서 自主國防 完遂를 위한 戰力增強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실증케 한바 있다.

政府招請人士 및 海外購買者에게는 物量, 品質 및 技術水準面에서 충분히 成長한 우리의 實像을 재확인시킴으로서 將次 防産物資輸出促進에 적극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造成하기 위함이었다.



비중을 두었던바 內國人에 대한 參觀는 상상의  
로 高潮된바 있어 큰 成果를 이룩하였고, 外國  
人의 參觀도 期待水準을 상회함으로써 비교적 만  
족스러운 商談까지 進전을 보았다.

따라서 우리 防産도 國力伸張과 더불어 이제  
는 先進列強과 어깨를 같이 하면서 海外市場 開  
拓과 輸出振興擴充을 위하여 자신감을 갖게되는  
등 刮目할 만한 발전과 成果가 이룩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몇가지 反省하고 覺醒할 點도 없지 않  
다.

첫째 : 高度化 專門委員의 양성과 資質向上策  
둘째 : 品質向上을 향한 꾸준한 努力

셋째 : 企業經營合理化 및 生産體制改善을 통  
한 原價節減 등으로 우리 製品의 公信用을 제고  
하여 國際競爭力確保에 이바지하는 길 만이 輸  
出促進의 지름길임을 이번 展示會를 통하여 얻  
어진 값비싼 敎訓으로 삼을 수 있다.

또한 最初 갖는 展示會로서 많은 經驗과 世界  
市場을 향한 앞으로의 輸出振興對策을 講究하는

때 必要한 資料를 얻어냄으로서 큰 成果가 있었  
음을 자부하며 肯定的인 평가를 내릴수 있겠다.

#### 4 結 論

本展示會를 주최한 立場에서 불매 行事目標가  
對國民弘報도 중요하지만 輸出振興을 향한 活路,  
開拓動機賦與에 注重하였던바 準備過程에서 제  
반여견상 넘려했던것 보다는 더많은 成果가 있  
었던 것으로 본다.

그러나 앞으로의 우리 防産은 생산 및 수출업  
체가 共히 自生的 努力과 강인한 의지로 相互協  
力하는 한편 關係政府當局의 積極적인 育成支援  
이 효율적으로 並進할때 우리의 앞날은 밝을 것  
이며 第2의 도약을 위한 急進的인 前進을 기약  
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本行事를 위하여 關係當局의 積極적인  
지원과 온 國民의 뜨거운 성원에 대하여 다시한  
번 깊은 감사를 올리는 바입니다.

